

## 헤어미용 실무자들의 자기 기술력 인식정도에 관한 고찰

이계숙\* · 나영순

군장대학 피부미용과\*, 건양대학교 미용디자인학과

### A Study on Beauty Artists' Perception Degree about Self-Technic

Lee, Kye Suk\* · Na, Young Soon

Dept. of skin and Beauty, kunjang college, Dept. of beauty and Design, Konyang University  
(2004. 1. 14. 접수)

#### Abstract

This study is an investigation research regarding Beauty Artists' perception degree about self-Technic. Therefore by grasping the field which the beauty artists recognize the insufficiency while they perform their task, the result which executed a question investigation for 430 workers at the beauty shops which are located in the Jeollabuk-do area is the same following. As a result on the subject, after the beauty artists receive a fundamental beauty care education, and when they are engaged in a real beauty care shop, in order not for them to have difficulties in business accomplishment, more realistic and active curriculum has to be made up. To do like this, more researches and more efforts in the center of the beauty care group and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re demanded. In addition, so as to grow as the expert of the beauty care artist, the systemic and internal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which considers the curriculum contents, a time and the place must be provided, by developing as levels and steps of the beauty artists.

**Key words** : training program(교육프로그램), beauty artists(미용사), perception degree(인식정도), educational institution(교육기관)

#### I. 서 론

오늘날 아름다움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소비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미용산업 역시 소비자의 마인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더욱이 정보와 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트렌드를 급속하게 전달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 헤어스타일은 전 세계의 패션을 동시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미용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더욱 다

양해지고 있다<sup>2)</sup>. 21세기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중, 미용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환경 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약, 여가 선용의 방법, 특정세대의 영향력으로 인한 새로운 물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패션의 개성화, 품질이나 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 상품과 기술 수명 주기의 단축, 가격파괴, 소비자 파워 강화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이와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미용업은 양적인 팽창과 함께 개방화의 영향 아래 더욱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소비자의 욕구 또한 더욱 다양화·차별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용산업 사회에서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수용하고 고급 미용인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시장상황에 맞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출발하였다. 미용업을 현 상황에서

\*Corresponding author : Lee, Kye Suk  
E-mail: kj3693@hanmail.net

더욱 성장, 발전하는 기업으로 존속시키기 위하여서는 실무현장의 상황과약에 근거한 대안 제시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미용업의 발전은 고객의 요구와 취향에 적합한 경영방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개선의 요체는 미용실의 성장에 공헌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기술력 향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그러나 현재 국내 미용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부족, 둘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제한성, 교육훈련 업무수행 조직의 한계성 등을 들 수 있다<sup>5)</sup>.

이에 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들이 컷, 염색, 보발 클리닉, 업스타일, 드라이 등과 같은 각 실무분야에서 느끼고 있는 자기기술력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함으로써 미용실무에서의 전문기술력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근거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미용기술과 업무능력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미용의 개념

우리말 큰 사전(1991)에 의하면 미용은 ‘얼굴이나 머리를 아름답게 매만질, 복식이외의 방법으로 즉, 화장품이나 결발 등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행하는 수단을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공중위생법 제2조에 보면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업무범위에는 미용업무를 퍼머넌트,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 얼굴손질 및 화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 2. 미용의 특수성

미용은 그림, 조각, 조경 등과 같은 조형 예술에 속하지만 응용예술과 보건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첫째, 미용은 시술 시 우선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미용인의 감성이 극히 제한된다.

둘째, 소재가 신체의 일부이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다.

셋째, 미용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여야만 하며 고객의 여러 가지 상황(모발진단, 연령, 피부타입, 직업, 계절, 취향, 장소 등)에 맞추어 디자인해야 한다.

넷째, 단지 고객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발과 피부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sup>6)</sup>.

이렇게 미용실 종사자가 수행하는 헤어디자인은 순수하게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예술’과는 달리 목적에 맞는 기능성이 있어야 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생활과 직결되어 고객에게 ‘행복’ 즉 ‘만족감’을 주어야 하는 본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형태(Form)는 예술에 기초를 두고 기능(Function)은 과학의 기초를 둔 그것이 미용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sup>7)</sup>.

### 3. 미용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미용실 수는 84,786개(보건복지부, 2001)로 IMF구제금융 이후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미용실 종사자중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는 290,469명(한국 산업 인력관리공단, 1999)이 있으며,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고 종사하는 종사자를 합하면 약 30~40만 여명에 이르며, 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실업자 대책과 미용업이 인기 직종으로 자리 잡은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미용관련 학과에서 고급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경력을 쌓아 자신의 미용실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만 초점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미용을 공부하려는 미용대학생의 증가와 미용전문대학의 꾸준한 발전이 근간을 이룬다<sup>9)</sup>. 21세기에는 해외시장 개방과 더불어 외국 미용기업의 진출도 점점 가속화 될 것이므로, 기술 분야에서도 신기술 확산이 보다 빨라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영적인 차별화와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유지와 확보가 중요하다<sup>10)</sup>.

### 4. 미용사의 직무

미용실의 직무형태는 미용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미용기술을 가진 종사자가 고객을 맞아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요금을 받는 고객을 중요시하는 소기업이다<sup>11)</sup>.

미용은 기초교육과정을 마치고 미용사 자격증을

얼은 후 작업현장으로 뛰어 든다. 그러나 정식 미용사로 인정받기까지는 현장경험을 통해 기술을 연마하는 견습시간을 거쳐야만 한다. 이는 기술을 숙련하여 정식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초기 실습기간의 특성은 직업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지혜(2000)의 연구에 따르면 미용은 현장 경력을 중시하고, 선후배 간의 위계가 엄격하므로 견습기간 동안의 역할이 명확하다. 직업위계는 보조와 인턴, 미용사 그리고 디자이너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란 미용실에서 다른 미용사들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고객의 머리 감기기에서부터 바닥청소, 잔심부름에 이르기까지 온갖 허드레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다. 이 시기는 직접 기술은 전혀 허용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한다. 보조 생활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턴'이 되면 처음으로 손님을 접하지만, 미용사나 디자이너가 작업범위를 세분해서 정해 준다. 예컨대, 퍼머의 롤러를 세팅하는 일과 같이 기술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작업 중심으로 하게 된다. 대개 1년 정도 지나면, 비로소 '미용사'가 된다. '미용사'란 '보조' 그리고 '인턴'과 같은 견습기간은 끝났지만, 아직까지는 독립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쉬운 커트와 학생커트, 정형화된 퍼머와 같이 어렵지 않은 시술은 마무리까지 직접 하지만, 까다로운 손님의 커트와 마무리는 할 수 없다. 2~3년 정도의 미용사 생활을 거치고 난 뒤에는 미용직에서는 최고 단계인 '디자이너' 혹은 '스타일리스트'가 된다. 이 때부터는 자신이 직접 스타일을 구상하여 완성하는 단계이다. 디자이너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작품을 창작하는 수준으로 이르거나 혹은 영역별 전문가가 되어 염색전문가, 모발관리 전문가, 커트전문가로 분화된다. 대부분의 미용인들은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은 후, 독립하여 자신만의 미용실을 차린다<sup>12)</sup>.

미용은 위와 같이 경력이나 직무내용에 따라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이 단계별로 불려지고 있는 명칭도 통일된 것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보조'와 '인턴'을 '스텝'이라 하여 업무영역이 청소, 삼푸와 미용사나 디자이너가 정해주는 업무를 하는 정도에 해당되며 '미용사'를 '중상'으로 하는데 견습시간이 끝난 사람으로서 독립기술자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시기로 쉬운 커트, 정형화된 커트 등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직접 스타일을 구상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를 내리며 '원장', '실장'

은 자신이 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여 미용업에 종사하는 업무별 단계를 스텝, 중상, 디자이너, 원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 III.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미용실 중 근접표집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사전에 교육받은 4명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430부였으며, 383부(89.1%)를 회수하여 그 중 내용이 부실한 15부(3.5%)를 제외한 368부(85.6%)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에서 발간된 전문서적, 연구 논문, 정기간행물 등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는 미용의 정의와 미용업의 직무내용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고찰하였고, 미용인들이 그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Excel로 입력한 다음 SPSS win(ver 7.5)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기술 분야별 부족 인식정도, 업무수행시 필요로 하는 교육 분야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는 여자가 299명(81.3%)으로 남자 69명(17.1%)에 4배 이상 많았고, 연령은 26세 이상이 195명(53.1%)으로 25세 이하 172명(46.9%)보다 많았고, 교육정도는 고졸이상이 309명(84.0%)으로 대졸이상 59명(16.0%)보다 많았다. 직위상태는 원장·실장이 110명(30.0%), 디자이너

너 106명(28.9%), 중상·스텝 151명(41.1%)이었으며 직원 수의 분포는 '3명 이하'가 193명(53.8%)으로 '4명 이상' 166명(46.2%)보다 많았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전북지역으로 소규모의 미용실이 많이 분포된 지역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면허증 소지여부는 '있음'이 337명(91.6%), '없음'이 31명(8.4%)으로 대부분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234명(63.6%)으로 기혼 134명(36.4%)보다 많았고, 급여정도는 '51~100만원 이하'가 170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가 100명(31.5%), '101만원 이상'이 47명(14.8%)이었으며, 미용경력에서는 '5년 이상'이 135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1년~3년 이하'가 102명(28.1%), '3년~5년 이하'가 68명(18.7%), '1년 이하'가 58명(16.0%)등의 분포를 보였다(표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관한 결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

일반적 특성	대상자수(%)	
	성별	남
	여	299 (81.3)
연령	25세 이하	172 (46.9)
	26세 이상	195 (53.1)
교육정도	고졸이하	309 (84.0)
	대졸이상	59 (16.0)
직위	원장·실장	110 (30.0)
	디자이너	106 (28.9)
	중상·스텝	151 (41.1)
직원수	3명 이하	193 (53.8)
	4명 이상	166 (46.2)
면허증소지여부	없음	31 ( 8.4)
	있음	337 (91.6)
결혼여부	미혼	234 (63.6)
	기혼	134 (36.4)
급여정도	50만원 이하	100 (31.5)
	51~100만원 이하	170 (53.6)
	101만원 이상	47 (14.8)
미용경력	1년이하	58 (16.0)
	1~3년 이하	102 (28.1)
	3~5년 이하	68 (18.7)
	5년이상	135 (37.2)
계		368(100.0)

전체 조사대상자중 277명(74.6%)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보통이다'가 54명(14.7%), '필요없다'가 37명(10.1%)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교육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필요성 인식정도를 연령별로 보면 '25세 이하'에서는 필요하다가 116명(67.4%), 보통 34명(19.8%), 필요없다가 22명(12.8%)이었고, '26세 이상'은 필요하다가 161명(82.6%), 보통 19명(9.7%), 필요없다 15명(7.7%)으로 연령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가 높았다(p<0.01). 미용경력에 따른 사항을 보면 '필요없다' 라고 응답한 37명중 '1~3년 이하'가 16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도 54명중 '1~3년'이 24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277명중 '5년 이상'이 109명(4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미용경력이 높을수록 미용교육을 더 필요로 하고 있었다(p<0.05). 이와 같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미용에 대한 재교육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용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품질의 차이가 나고, 미용품질이 고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며(김종근, 1998), 미용업은 유행에 민감하고 고객의 만족으로 최종 평가를 내리는 서비스 형태를 지니므로 이론과 실기 모든 면에서 새롭고 다양한 교육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오경은, 2001). 경력이 높은 경우와 연령이 높은 경우에서 미용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미용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수행해야 할 업무분야가 다양화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표 2).

**3. 커트분야의 기술 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중 커트분야에 대한 기술부족 인식정도가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은 194명(52.7%)이었으며, '부족하다'고 한 사람은 120명(32.6%), 54명(14.7%)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커트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고, 연령별 커트기술 부족인식의 정도를 보면 25세 이하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97명(80.8%)으로 가장 많았고, 26세 이상은 '보통'이 128명(66.3%) 응답하여 연령이 낮은 경우 커트기술에 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p<0.01). 직위에 있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교육의 필요성 인식정도에 관한 사항

일반적 특성		미용교육의 필요성 인식정도		
		불필요	보통이다	필요
성	남	9 (24.3)	12 (22.2)	48 (17.3)
	여	28 (75.7)	42 (77.8)	229 (82.7)
연령	25세 이하	22 (59.5)	34 (64.2)	116 (41.9)**
	26세 이상	15 (40.5)	19 (35.8)	161 (58.1)
교육정도	고졸이하	30 (81.1)	49 (90.7)	230 (83.0)
	대졸이상	7 (18.9)	5 (9.3)	47 (17.0)
직위	원장·실장	7 (18.9)	10 (18.5)	93 (33.7)*
	디자이너	9 (24.3)	22 (40.7)	75 (27.2)
	중상·스텝	21 (56.8)	2 (40.7)	108 (39.1)
직원수	3명 이하	17 (48.6)	21 (40.4)	155 (57.0)
	4명 이상	18 (51.4)	31 (59.6)	117 (43.0)
면허증	없음	6 (16.2)	6 (11.1)	19 (6.9)
	있음	31 (83.8)	48 (88.9)	258 (93.1)
결혼여부	미혼	24 (64.9)	43 (79.6)	167 (60.3)*
	기혼	13 (35.1)	11 (20.4)	110 (39.7)
급여정도	50만원이하	14 (43.8)	14 (31.1)	72 (30.0)
	51~100만원	14 (43.8)	28 (62.2)	128 (53.3)
	101만원이상	4 (12.5)	3 (6.7)	40 (16.7)
미용경력	1년이하	4 (10.8)	9 (16.7)	45 (16.5)*
	1~3년이하	16 (43.2)	24 (44.4)	62 (22.8)
	3~5년이하	5 (13.5)	7 (13.0)	56 (20.6)
	5년이상	12 (32.4)	14 (25.9)	109 (40.1)
계		37 (10.1)	54 (14.7)	277 (74.6)

주) \* p<0.05, \*\*p <0.01,  $\chi^2$ -검정에 의함

어서도 원장·실장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7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이너도 80명(75.5%)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중상·스텝은 102명(67.5%)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직위가 낮을수록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p<0.01). 커트기술부족 인식정도가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인 경우는 ‘부족함’이 107명(45.7%), ‘보통’이 115명(49.1%)으로 기혼에서보다 부족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수가 많았으며, 기혼에서는 ‘부족하지 않음’이 42명(31.3%)으로 미혼의 12명(5.1%)보다 많았다(p<0.01). 미용경력에 있어서는 ‘1년 이하’는 56명(96.6%)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1~3년 이하’는 52명(51.0%)이 ‘부족’, 47명(31.1%)이 ‘보통이다’고 응답하였고, ‘3~5년 이하’는 ‘보통’이 52명(76.5%)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에서는 ‘보통’ 89명(65.9%)이 응답,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도 42명(31.1%)으로 경력이 적을수록 커트기술에 대하여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p<0.01).

#### 4. 염색분야의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결과

염색에 대한 기술부족 인식정도는 전체 대상자 중 208명(56.5%)이 ‘보통’, 99명(26.9%)은 ‘부족하다’고 하였고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61명(16.6%)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른 염색기술 부족정도는 ‘25세 이하’에서는 ‘보통’이 82명(47.7%), ‘부족함’이 77명(44.8%), ‘부족하지 않음’이 13명(7.6%)이었으며, ‘26세 이상’에서는 ‘보통’이 125명(64.1%), ‘부족하지 않음’이 48명(24.6%) ‘부족함’이 22명(11.3%)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염색에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커트분야의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사항

일반적 특성		커트분야 기술부족 인식정도		
		부족함	보통이다	부족하지 않음
성	남	25 (20.8)	36 (18.6)	8 (14.8)
	여	95 (79.2)	158 (81.4)	46 (85.2)
연령	25세 이하	97 (80.8)	65 (33.7)	10 (18.5)**
	26세 이상	23 (19.2)	128 (66.3)	44 (81.5)
교육정도	고졸이하	101 (84.2)	161 (83.0)	47 (87.0)
	대졸이상	19 (15.8)	33 (17.0)	7 (13.0)
직위	원장·실장	4 ( 3.3)	67 (34.7)	39 (72.2)**
	디자이너	14 (11.7)	80 (41.5)	12 (22.2)
	중상·스텝	102 (85.0)	46 (23.8)	3 ( 5.6)
직원수	3명 이하	57 (49.1)	106 (55.8)	30 (56.6)
	4명 이상	59 (50.9)	84 (44.2)	23 (43.4)
면허증	없음	18 (15.0)	9 ( 4.6)	4 ( 7.4)**
	있음	102 (85.0)	185 (95.4)	50 (92.6)
결혼여부	미혼	107 (89.2)	115 (59.3)	12 (22.2)**
	기혼	13 (10.8)	79 (40.7)	42 (77.8)
급여정도	50만원이하	78 (67.8)	20 (11.8)	21 ( 6.1)
	51~100만원	36 (31.3)	119 (70.4)	15 (45.5)**
	101만원이상	1 ( 0.9)	30 (17.8)	16 (48.5)
미용경력	1년이하	56 (47.1)	2 ( 1.1)	..**
	1~3년이하	52 (43.7)	47 (24.7)	3 ( 5.6)
	3~5년이하	7 ( 5.9)	52 (27.4)	9 (16.7)
	5년이상	4 ( 3.4)	89 (46.8)	42 (77.8)
계		120 (32.6)	194 (52.7)	54 (14.7)

주) p<0.05, \*\*p<0.01

대한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많았다 (p<0.01). 직위에 따라서는 원장·실장은 64명(58.2%)이 ‘보통’, ‘부족하지 않다’가 39명(35.5%)이 응답하였으며, 디자이너는 보통이 77명(72.6%), 중상·스텝은 ‘부족함’이 77명(51.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직위별로 염색기술 부족 인식정도가 다른 분포를 보이며, 급여정도에서도 ‘50만원 이하’에서는 ‘부족함’이 65명(65.0%)으로 가장 많았고, ‘51~100만원’은 ‘보통’이 119명(70.0%)으로 가장 많았다(p<0.01). 미용경력에 있어서도 ‘1년 이하’는 58명중 46명(79.3%)이 ‘부족하다’고 응답, ‘1~3년’은 ‘보통’이 55명(53.9%), ‘부족함’은 37명(36.3%)이 응답하였고, ‘3~5년’은 ‘보통’ 52명(76.7%)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은 ‘보통’ 85명(63.0%), ‘부족하지 않음’이 43명(31.9%)으로 많았으며 7명(5.2%)만이 부족하다고 응

답하여 미용경력이 높을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비율이 낮았다(p<0.01).

### 5. 모발크리닉 분야의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결과

모발크리닉에 대한 기술부족 인식정도는 전체 대상자중 218명(59.2%)이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102명(29.3%)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48명(13.0%)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여 염색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에 있어서 ‘25세 이하’는 ‘보통’이 93명(54.1%), ‘부족함’이 72명(41.9%), ‘부족하지 않음’이 7명(4.1%)이었으나, ‘26세 이상’에서는 ‘보통’은 124명(63.6%), ‘부족하지 않음’이 41명(21.0%), ‘부족함’이 30명(15.4%)이었다(p<0.01).

&lt;표 4&g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색분야의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사항

일반적 특성		업색분야 기술부족 인식정도		
		부족함	보통이다	부족하지 않음
성	남	24 (24.2)	35 (16.8)	10 (16.4)
	여	75 (75.8)	173 (83.2)	51 (83.6)
연령	25세 이하	77 (77.8)	82 (39.6)	13 (21.3)**
	26세 이상	22 (22.2)	125 (60.4)	48 (78.7)
교육정도	고졸이하	87 (87.9)	163 (78.4)	59 (96.7)**
	대졸이상	12 (12.1)	45 (21.6)	2 ( 3.3)
직위	원장·실장	7 ( 7.1)	64 (30.9)	39 (63.9)**
	디자이너	15 (15.2)	77 (37.2)	14 (23.0)
	중상·스텝	77 (77.8)	66 (31.9)	8 (13.1)
직원수	3명 이하	50 (52.6)	115 (56.7)	28 (45.9)
	4명 이상	45 (47.4)	88 (43.3)	33 (54.1)
면허증	없음	15 (15.2)	15 ( 7.2)	1 ( 1.6)**
	있음	84 (84.8)	193 (92.8)	60 (98.4)
결혼여부	미혼	90 (90.9)	121 (58.2)	23 (37.7)**
	기혼	9 ( 9.1)	87 (41.8)	38 (62.3)
급여정도	50만원이하	65 (69.1)	32 (17.3)	3 ( 7.9)**
	51~100만원	27 (28.7)	119 (64.3)	24 (63.2)
	101만원이상	2 ( 2.1)	34 (18.4)	11 (28.9)
미용경력	1년이하	46 (46.9)	12 ( 5.9)	-**
	1~3년이하	37 (37.2)	55 (27.0)	10 (16.4)
	3~5년이하	8 ( 8.2)	52 (25.5)	8 (13.1)
	5년이상	7 ( 7.1)	85 (41.7)	43 (70.7)
계		99 (26.9)	208 (56.5)	61 (16.6)

주) p<0.05, \*\*p<0.01

## 6. 업스타일 분야의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결과

업스타일에 대한 기술부족 인식정도는 전체 대상 자중 180명(48.9%)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 152명(41.3%), '부족하지 않음'이 36명(9.8%)으로 대체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5세 이하는 '부족함'이 129명(75.0%)으로 가장 많았고, 26세 이상은 '보통'이 111명(56.9%)으로 많았으며, 직위가 원장·실장인 경우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가 67명(6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이너도 '보통'이 64명(60.4%)으로 가장 많았으나, 중상·스텝은 '부족함'이 128명(84.8%)으로 거의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p<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는 '부족함'이 152명(65.5%)으로 많았으며, 기혼

의 경우 74명(55.2%)이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급여정도에서는 '50만원이하'에서는 84명(84.0%)이 부족하다고 응답, '51~100만원'에서는 '부족함'이 88명(51.8%), '보통' 77명(45.3%)이 응답, '101만원 이상'에서는 '보통'이 34명(72.3%) '부족하지 않다'가 11명(23.4%), '부족함'이 2명(4.3%)으로 급여가 높을수록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p<0.01).

## 7. 드라이 분야의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결과

드라이에 대한 기술부족 인식정도를 보면 전체 대상자중 198명(53.8%)이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한 수는 108명(29.3%)이고, 62명(16.8%)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였다. 연령이 '25세 이하'는 '부족함'이 85명(49.4%), '보통'이 78명(45.3%), '부족하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크리닉의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사항

일반적 특성		모발크리닉 기술부족 인식정도		
		부족함	보통이다	부족하지 않음
성	남	30 (29.4)	30 (13.8)	9 (18.8)**
	여	72 (70.6)	188 (86.2)	39 (81.3)
연령	25세 이하	72 (70.6)	93 (42.9)	7 (14.6)**
	26세 이상	30 (19.4)	124 (57.1)	41 (85.4)
교육정도	고졸이하	89 (87.3)	178 (81.7)	42 (87.5)
	대졸이상	13 (12.7)	40 (18.3)	6 (12.5)
직위	원장·실장	8 ( 7.8)	66 (30.4)	36 (75.0)**
	디자이너	18 (17.6)	79 (36.4)	9 (18.8)
	중상·스텝	76 (74.5)	72 (33.2)	3( 6.3)
직원수	3명 이하	46 (46.5)	127 (59.6)	20 (42.6)*
	4명 이상	53 (53.5)	86 (40.4)	27 (57.4)
면허증	없음	16(15.7)	15 ( 6.9)	_*
	있음	86 (84.3)	203 (93.1)	48 (100.0)
결혼여부	미혼	87 (85.3)	134 (61.5)	13 (27.1)**
	기혼	15 (14.7)	84 (38.5)	35 (72.9)
급여정도	50만원이하	60 (60.6)	39 (20.9)	1(3.2)**
	51~100만원	36 (36.4)	116 (62.0)	18 (58.1)
	101만원이상	3 (3.0)	32 (17.1)	12 (38.7)
미용경력	1년이하	43 (42.6)	14 (6.5)	1 (2.1)**
	1~3년이하	36 (35.6)	63 (29.4)	3 ( 6.3)
	3~5년이하	12 (11.9)	49 (22.9)	7 (14.6)
	5년이상	10 ( 9.9)	88 (41.1)	37 (77.1)
계		102 (27.7)	218 (59.2)	48 (13.0)

주) p<0.05, \*\*p<0.01

지 않음'이 9명(5.2%)이었고, '26세 이상'은 '보통'이 119명(61.0%), '부족하지 않음'이 53명(27.2%), 부족함이 23명(11.8%)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위가 원장·실장인 경우는 '보통'이 54명(49.1%), '부족하지 않음'이 50명(45.5%), '부족함'이 6명(5.5%)이었고, 디자이너는 '보통' 82명(77.4%), '부족함' 14명(13.2%), '부족하지 않음'이 10명(9.4%)이었으며, 중상·스텝은 '부족함'이 88명(58.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보통'은 61명(40.4%), '부족하지 않다'는 2명(1.3%)만이 응답하여 직위가 낮을수록 드라이에 대한 기술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p<0.01).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부족함'이 69명(69.0%), '보통' 30명(30.0%), '부족하지 않음'이 1명(1.0%), '51~100만원'은 '보통'이

121명(71.2%), '부족함'이 32명(18.8%), '부족하지 않음'이 17명(10.0%), '101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통' 26명(55.3%), '부족하지 않음'이 19명(40.4%), '부족함'이 2명(4.3%)으로 급여가 낮을수록 드라이기술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위의 결과로 보아 연령, 직위, 미용경력이 낮을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미용기술이 많은 경험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커트와 염색, 모발크리닉, 드라이 등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으며, 업스타일부문에서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수가 더 많았는데 이것은 업스타일 기술 자체가 미용의 종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며, 많은 경험과 경력을 요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



&lt;표 6&g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스타일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사항

일반적 특성		업스타일		
		부족함	보통	부족하지않음
성	남	39 (21.7)	25 (16.4)	5 (13.9)
	여	141 (78.3)	127 (83.6)	31 (86.1)
연령	25세 이하	129 (71.7)	40 (26.5)	3 ( 8.3)**
	26세 이상	51 (28.3)	111 (73.5)	33 (91.7)
교육정도	고졸이하	155 (86.1)	122 (80.3)	32 (88.9)
	대졸이상	25 (13.9)	30 (19.7)	4 (11.1)
직위	원장·실장	11 ( 6.1)	67 (44.4)	32 (88.9)**
	디자이너	41 (22.8)	64 (42.4)	1 ( 2.8)
	중상·스텝	128 (71.1)	20 (13.2)	3 ( 8.3)
직원수	3명 이하	81 (46.3)	89 (59.7)	23 (65.7)*
	4명 이상	94 (53.7)	60 (40.3)	12 (34.3)
면허증	없음	22 (12.2)	8 ( 5.3)	1 ( 2.8)*
	있음	158 (87.8)	144 (94.7)	35 (97.2)
결혼여부	미혼	152 (84.4)	78 (51.3)	4 (11.1)**
	기혼	28 (15.6)	74 (48.7)	32 ( 88.9)
급여정도	50만원이하	84 (48.0)	15 (12.0)	1 ( 5.9)**
	51~100만원	88 (50.3)	77 (61.6)	5 (29.4)
	101만원이상	3 ( 1.7)	33 (26.4)	11 (64.7)
미용경력	1년이하	56 (31.6)	2 ( 1.3)	***
	1~3년이하	79 (44.6)	21 (14.0)	2 ( 5.6)
	3~5년이하	32 (18.1)	35 (23.3)	1 ( 2.8)
	5년이상	10 ( 5.6)	92 (61.3)	33 (91.7)
계		180 (48.9)	152 (41.3)	36 ( 9.8)

주) p<0.05, \*\*p<0.01

이다. 미용은 기술을 주체로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기술은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종업원이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기술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계층에 맞는 적절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계층별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층별 교육훈련을 교육정책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계층의 역할 기대, 직무요건 등의 교육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복되거나 단절됨이 없이 체계화하여야 한다<sup>15)</sup>.

## V. 결 론

본 연구는 미용인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기술력의 정도를 조사하여, 미용실무에서의 전문 기술력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미용교육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미용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둘째, 커트·염색·도발클리닉·업스타일 등 세부적인 기술에 관한 자기 인식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연령과 직위가 낮고, 경력이 적은 집단에서 기술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미용인으로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력과 직위가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서는 미용단체, 교육기관, 그리고 미용실무자들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드라이 기술부족 인식정도에 관한 사항

일반적 특성		드라이		
		부족함	보통	부족하지 않음
성	남	26 (24.1)	37 (18.1)	6 (9.7)
	여	82 (75.9)	161 (81.3)	56 (90.3)
연령	25세 이하	85 (78.7)	78 (39.6)	9 (14.5)**
	26세 이상	23 (21.3)	119 (60.4)	53 (85.5)
교육정도	고졸이하	92 (85.2)	166 (83.8)	51 (82.3)
	대졸이상	16 (14.8)	32 (16.2)	11 (17.7)
직위	원장·실장	6 (5.6)	54 (27.4)	50 (80.6)**
	디자이너	14 (13.0)	82 (41.6)	10 (16.1)
	중상·스텝	88 (81.5)	61 (31.0)	2 (3.2)
직원수	3명 이하	53 (51.5)	108 (55.4)	32 (52.5)
	4명 이상	50 (48.5)	87 (44.6)	29 (47.5)
면허증	없음	16 (14.8)	13 (6.6)	2 (3.2)*
	있음	92 (85.2)	185 (93.4)	60 (96.8)
결혼여부	미혼	93 (86.1)	127 (64.1)	14 (22.6)**
	기혼	15 (13.9)	71 (35.9)	48 (77.4)
급여정도	50만원이하	69 (67.0)	30 (16.9)	1 (2.7)**
	51~100만원	32 (31.1)	121 (68.)	17 (45.9)
	101만원이상	2 (1.9)	26 (14.7)	19 (51.4)
미용경력	1년이하	50 (46.7)	8 (4.1)	-.**
	1~3년이하	42 (39.3)	58 (29.9)	2 (3.2)
	3~5년이하	8 (7.5)	52 (26.8)	8 (12.9)
	5년이상	7 (6.5)	76 (39.2)	52 (83.9)
계		108 (29.3)	198 (53.8)	62 (16.8)

주) p<0.05, \*\*p<0.01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소비자는 전문인을 능가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트렌드를 수용·개발할 수 있는 미용전문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용실무자들이 미용업을 평생직업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미용실무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 그리고 직업에 알맞은 인성 및 경영교육,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미용업계만의 만성적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보강을 해결할 뿐 아니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때, 미용산업의 미래 또한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정 훈(2000).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미용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pp. 1-30.
- 2) 오경은(200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미용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 이화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
- 3) 김종근(1997). 뷰티살롱 교육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
- 4) 유상준(1997). 미용경영아카데미. 한국생산성본부, p. 42.
- 5) 김종근(1997). 뷰티살롱 교육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7-30.
- 6) 미용종합이론(1995). 미용교재연구회. 서울 : 유신문화사, p. 18.

- 7) 광형심, 임미숙(1998). 미용실무 전개를 위한 형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1), pp. 15-37.
- 8) 윤수용(2001). 미용학개론. 서울: 훈민사, pp. 1-7, 52.
- 9) 정 훈(2000).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미용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pp. 1-30.
- 10) 김종근(1998). 뷰티살롱 고객만족서비스. 리그라인, p. 44.
- 11) 윤수용(2001). 뷰티살롱 종사자의 직무특성 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
- 12) 이지혜(2000). 성인의 학습자 성장과정 연구-미용인의 직업발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54.
- 13) 김종근(1997). 뷰티살롱 교육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
- 14) 오경은(200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미용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
- 15) 김윤환(1996).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연구 - 계층별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0.